



도로공사로 인한 소음·진동피해



Point

폐사축과 공사 소음피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개체만
배상인정

인과관계가 없는 폐렴 등 질병 발생축
에 대해서는 피해를 제외한 사례





도로공사로 인한 소음·진동피해

◆ 사건의 개요

건설공사 암발파 및 절취공사 소음·진동으로 인한 가축(한우) 및 농작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금45,500,000원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





도로공사로 인한 소음·진동피해

◆배상범위

공사장비 사용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최대 76.6dB(A)로 생활 소음 주간 관리기준인 70dB(A) 이상으로 소음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가 인정됨.

(가축배상액:19,080,990원)





도로공사로 인한 소음·진동피해



Point

한우 유사산 피해가 일부 인정되었으나, 성장지연 및 수태율 저하 피해는 기준 이하로 비인정한 사례.





도로공사로 인한 소음·진동피해

◆ 사건의 개요

노반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으로 인한 한우
피해 및 정신적 피해로 44,112,000원의 배상 요구한 사건





도로공사로 인한 소음·진동피해

◆ 배상 범위

• 유·사산 피해: 개연성 일부 인정

- 평상시 사육입지 조건과 비교할 때 이격거리 40~48m 기준, 철도건설공사 등가소음 71~74dB(A) 및 순간 최대 소음 74dB(A) 이상으로 측정되어 한우가 소음에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.
- 공사기간중 발생한 유산 송아지 및 그 어미 소들의 관리비 증가에 대한 피해 인정.

• 성장지연 및 수태율 저하 등 피해: 개연성 비인정

- 인과관계 기준(60dB(A), 0.02cm/s) 이하인 59dB(A), 0.007cm/s로 평가되어 비인정

